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2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 안전기획팀장 노연석 ☎440-5731 • 담당자 강금설 ☎440-5735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우리동네 눈치우기 활성화 방안 논의

- 10일, 대설·한파 대비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

-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 당부 -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해 대설·한파 대비 기관별 역할과 방재 대책을 점검하고 우리 동네 눈 치우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 등의 유관 단체도 참석했다.

12월 초 진행한 대설·한파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점검과 지난 11월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이면도로 낙상사고 예방과 빙판길 통행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21년 우리동네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내 집, 내 점포(상가) 앞 눈치우기 홍보 캠페인을 군·구 및 자율방재단 등의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자동식 소형 제설 살포기를 지원하여 제설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제설작업이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안영규 인천시행정부시장은 “대설 시 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와 특히 교통 통제 및 피해복구 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동네 눈치우기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2021년 12월 시민안전정책회의, 12. 10.(금) 시 재난안전상황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10일 ‘12월 시민안전정책회의’에서 동절기 대설·한파 대비 추진상황 점검과 민관이 협력하는 ‘우리동네 눈치우기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